

산(山) 사나이들의 생사의 경계를 초월한 우정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영호남 산악인들이 지난해 히말라야 마나슬루(Manaslu·8,163m) 등반 도중 숨진 동료 2명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원정대를 꾸린 것이다.



다음달 17일 출국하는 '자유를 향한 2011 마나슬루원정대' 대원들이 지난달 16일 한라산 장구목에서 시신수습 및 수습, 추모 등반을 위한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마친 뒤 성공적인 원정을 다짐하고 있다. <원정대 제공>

산사나이들의 우정 드라마

영호남 산악인들, 마나슬루서 숨진 동료 2명 시신 수습위해 원정대 꾸려

숨진 두 대원은 당시 3명의 동료와 함께 정상 공격에 나섰다. 정상에 불과 60여m 앞둔 해발 8,100m 지점에서 강한 바람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화이트 아웃을 만나 비박을 한 뒤 하산을 강행했으나 약전후로 인해 실종됐다.



<고 박행수대원> <고 윤치원대원>

두 대원이 조난당한 직후 원정대와 광주 및 경남산악연맹 관계자들은 현지에서 헬기를 동원해 수차례 수색했지만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두 대원의 장례식은 지난해 5월 9~11일 고향인 광주와 진해에서 시신 없이 치러졌다.

원정대는 위계룡(58·순천메디칼병원장) 단장을 비롯해 차영민(54·진해산악회장) 부단장, 박상수(53·한국도로공사산악팀) 원정대장, 이정현(40·순천대OB) 등반대장, 김덕신(48·진해산악회)·



■ 수색캠프 및 시신 위치도

박남수(46·광주시산악연맹 이사)·박명환(42·진주마차푸차레산악회)·김미곤(39·한국도로공사산악팀)·윤운현(36·광주대OB) 대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원정대는 다음달 18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해 등반 준비를 마친 뒤 23일부터 아라카~마차콜라~자갓~뎡~나무릉~사마가웅을 거쳐 31일 해발 4,800m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4월 6일부터 캠프1(5,400m), 캠프2(6,400m), 캠프3(6,900m), 캠프4(7,350m)를 차례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착수한다.

원정대는 지난해 10월 시신 수습 원정대 결성을 결의한 뒤 11월부터 덕유산, 지리산, 무등산 등지에서 탐위크·구주·체력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한라산 장구목에서 수색·시신수습을 위한 강도 높은 동계훈련으로 탐금질을 해왔다.

원정대는 12일 오후 2시 순천시 인월동 순천메디칼병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국내에서 시신 수습을 위한 원정대가 꾸려진 것은 지난 2005년 임흥길씨를 등반 대장으로 한 '에베레스트 휴먼 원정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상수 원정대장은 "차가운 눈속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을 찾기 위해 원정대를 꾸렸다"면서 "두 대원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마나슬루는 세계 제 8위의 고봉으로, 현지인들은 '마나사(Manasa)'라고 부르며 신성시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당 '순천 양보' 갈등 확산

내부 방침 정한 듯...지역정치권 '결사 반대'

4·27 재보선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당이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텃밭인 순천을 내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 최소한의 민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당 연대·연합특위는 재보선 지역 4곳(강원지사,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가운데 한 곳을 '무공천'을 통한 야권연대 대상으로 배려하고 나머지 지역은 경합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의결,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순환구 대표가 지난 20일 '동 큰 양보론'을 내세운데다

호남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기류 등을 감안한다면 순천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박주선 최고위원의 반대 등 지도부 내부 이견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순천에서의 무공천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거셀 전망이다. 실제로 순천시 민주당 시·도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순천 보선에서 민주당 후보 무공천 논의를 결사 반대한다"며 "순천시민과 전남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당의 정통성 붕괴와 함께 지지세력 이반현상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 원로들과 야 4당 대표가 모여 발표한 야권연합 공동선언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순천 보선에 출마한 민주

당 인사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반 MB 전선과 2012 정권재창출보다 개인의 정치기득권이 우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경남 김해 을의 양보를 주장해왔던 국민참여당의 반발도 강력할 전망이다. 이서야권연대 협상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로 서울 중구, 전남 화순, 강원 양양 기초단체장 선거가 추가되면서 이번 재보선 규모가 전국 단위의 '미니 총선급'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치권은 표밭 공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길목에 놓여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지도부 교체 등 정치권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리비아 대총돌 '피의 트리폴리'

곳곳 교전...리비아 교민 560명 철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의 친위병력이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시위대와 반정부 무장세력의 진격에 대비, 수도 트리폴리에 속속 집결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카다피 국가원수는 이날 반정부 시위사태 이후 두 번째로 대중연설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배후가 알-카에다라고 비난하면서 지지세력에 시위대에 대한 대응을 주문, 양측 간 대결과 긴장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친-반정부 세력 전열 정비, 대총돌 우려 = 24일(현지시간) 트리폴리 거리에는 다양한 군복을 입은 민병대와 용병 등 중무장한 비정규군 수천명이 배치됐고, 카다피의 용병부대 '이슬람 범아프리카 여단' 2500명도 이번 사태 이후 리비아로 불려온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NYT)가 주민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확대되면서 수도를 향하자 카다피 지지세력이 트리폴리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와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반 카다피 시위대와 무장세력은 이날 현재 리비아 제2도시인 벤غاز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과 튀니지 국경 근처 주와라 등 서부 일부 지역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국지적 충돌 현실화 = 수도 트리폴리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카다피 친위 병력과 반정부 세력 간 국지적 충돌이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하면서 내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트리폴리에서 서쪽으로 불과 50km 떨어진 자위야 지역에서는 이날 반정부 세력과 카다피 친위병력 간 교전이 발생, 100여 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카다피는 전날 반정부 시위대에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대량학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정부 세력은 25일 트리폴리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조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친위 병력도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육·해·공 모든 수단 동원한 탈출 = 반정부 시위 사태가 내전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자 리비아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각국 정부의 총력전은 이날 역시 계속됐다. 한국 정부는 25일 항공기 2대를 동원, 출국을 희망하는 교민 560명을 태워 출국시키고 교민 철수 장기화에 대비해 청해부대 최정함을 현지에 급파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Advertisement for the 46th Kwangju Ilbo 3.1 National Marathon. Includes details about the race on March 1st, starting at 08:30, and sponsors like Kwangju City and various media outlets.